單位 문제로 본 助詞의 文法的 處理

李　　男　　德 (梨花女子大學)

助詞(토씨)의 문제는 우리 文法에 있어서 결국 形態論 전부의 문제와 관계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名詞의 變化로서 格變化만에 그치지 않고 名詞陳述의 문제가 대두되고 따라서 用言陳述의 문제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지금 學校 文法에서 體言陳述語尾(noun-verbalizer)를 叙述格이라하여 助詞處理와 함께 다루고 있고 또 品詞分類論에 있어서 助詞를 獨立 品詞로 認定하는 見解와 認定치 아니하는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이러한 論難의 하나 하나는 결국 文法的 基本 單位를 무엇으로 하느냐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學校文法 乃至 實用文法의 文法見解를 單位面에서 살펴보고 다음에 科學的인 새로운 文法學에서는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키로 한다.

(1) 學校文法의 助詞處理

從來의 學校 文法의 基本 單位는 單語(낱말)인 點에서는 모든 文法學者들이 一致하고 있다. 이는 西洋 文法의 word의 槪念을 導入한 것으로 印歐語와는 性質이 다른 우리 국어를 이 單位로서 分析하려 하는데 이미 論難의 문제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助詞에 대해서 獨立 品詞의 資格을 주는 見解와 안주는 見解와는 우선 noun-suffix가 單語이냐 아니냐에 그 出發點을 各各 두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푸르다."라는 sentence (두마디로 구성된)를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세개의 見解를 볼 수 있다.

A. 하늘 | 이 | 푸르 | 다 | (4單語) 첫째 見解
B. 하늘 | 이 | 푸르다 | (3單語) 둘째 見解
C. 하늘이 | 푸르다 | (2單語) 세째 見解

위의 세 見解는 基本 單位로서 한결 같이 單語라는 名稱을 쓰고 있는데 실은 그 때문에 見解差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三者가 다 反對하지 않을 理論은 이 sentence는 네개의 형태소(morpheme)로 이루어 졌다, 또는 두 마디로 되었다 하면 될 것이다. 우리 말의 "마디"가 우리 말을 분석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單位이다. 그러나 세째번 見解처럼 이는 두 單語로 이루어 졌다 하면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둘째번 見解는 같은 依存形態素(bound form)인 noun-suffix와 verb-suffix를

公平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改正된 學校文法이 理論的으로 가장 矛盾點이 많은 이 見解를 채택하였음은 유감스럽다. 특히 이 見解의 矛盾點은 體言陳述語尾 이다 의 處理에서 露出되었으니 아무 實質 概念이 없는 一이다를 觀念詞體系에 넣어서 處理하였거나 (최현배 文法) 또는助詞나 마찬가지로 體言變化로 하였거나 (李熙昇 文法)間에 體言陳述語尾는 品詞取扱을 하면서 用言陳述語尾는 品詞取扱을 하지 않은 점이다.

첫째번 견해는 가장 分析的이고 또 單位의 名稱을 單語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形態素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理論이다. 周時經文法에서 이를 "늣씨"라고 명칭하고 分析이 不可能한 窮極點까지 가려고 한 點은 높이 評價할 일이다.

결국 學校文法이 許容하는 限界點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助詞의 文法的 처리는 決定된다. 즉 文法의 單位를 單語에다 둔다면 세째번 見解를 채택할 것이다. 但 "하늘이"는 한 單語가 아니오 "하늘"이란 單語의 變化 部分으로 助詞—이를 취급하면 된다. 이때에 —이는 獨立 品詞가될 수 없음은 勿論이다. 만일에 學校文法의 程度를 높이고 形態素 (또는 늣씨라도 可)를 그 基本 單位로 한다면 첫째번 見解를 채택할 것이다. 但 整理되지 아니한 許多한 형태소 分析의 문제를 정리하고 科學的인 言語理論으로 體系化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學校文法이 될 것이다.

(2) noun-suffix 의 形態論的 處理

形態素를 基本 單位로 하는 形態論에 있어서 助詞 (noun-suffix)는 依存形態素에 屬한다. 이제 筆者가 試圖한 국어의 形態素 分類(註 1)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獨立 形態素 分類 (名稱은 간편을 위주하여 恣意로 붙인 것이다)

N-class (noun)	從來 文法의	體言 (名詞, 代名詞 數詞)
V-class (verb)	〃	用言 (動詞, 形容詞)

註 1,

A-class (adjeative)	從來 文法의	冠形詞
D-class (adverb)	〃	副詞
E-class (mterjection)	〃	感嘆詞

2. 依存形態素 分類

NS (noun-suffix)	助詞
VS (verb-suffix)	用言 語尾
NV (noun-verbaliyer)	體言 陳述語尾 {—i—}
VV (verb-stentextender)	補助語幹

3. 이 밖에 接辭類의 分類는 省略함.

結　　論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助詞의 文法的 處理가 現行 學校文法에 있어서나 學問的인 立場에 있어서나 不合理하게 되어 있고 또 上位概念과 下位概念과를 區分치 못하여 그 分類에 一貫한 基準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세째번 見解에서 free form만 單語로 인정하여 bound form은 品詞 자격을 주지 아니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品詞 分類를 (1) 名詞, (2) 代名詞, (3) 數詞, (4) 動詞, (5) 形容詞, (6) 冠形詞, (7) 副詞, (8) 感嘆詞로 하여 이 八品詞를 一律的으로 다룬 것은 잘못된 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 (2), (3)은 그 文法的 性質로 보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4), (5) 역시 用言(verb)의 下位區分으로 足할 것이다. 上下 關係를 同一關係처럼 分類한 것은 慣用의 學校文法에서는 혹 容認될지 모르나 理論的 根據는 없다고 보겠다.